중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입안예고 농림부

농림부는 지난8월 2일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안)을 임안예고 했다.

오는 9월 10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 안을 확정키위해 입안예고된 중국산가금육 수입위생조건을 보면 ▲수출국은 지난 3년간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하며 ▲가금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서는 지난 2개월간 뉴캣슬병과 지난 12개월간 가금콜레라, 추백리,가금티프스, 전염병 F낭병, 마렉,오리바이러스간염,장염 등 발생이 없어야 한다. 또 ▲수출국정부는 자국에서 실시하는 중요 가금전염병 방역 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를 매년 한국정부에 통보토록하고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한국으로 가금육의 수출을 희망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그중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승인한 작업장에서 가금의 도살 해체 가공 포장 및 보관이 이뤄지도록하고 있다. 또▲ 한국으로 수출이 승인된 작업장에서는 한국으로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 수출국 및 수출지역으로부터 수입 또는 그와 같은 국가를 경유한 가금 및 그 육류를 취급해서는 안되며 ▲한국정부 수의당국은 수출가금육에 대한 검역중 한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와 가금인푸루엔자에대한 정밀건사 결과 가금인푸루엔자 혈청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가금육을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하고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한국으로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하고 있다.

한편 이조건에 의한 승인작업장은 ▲하남성 화영 금업집단, ▲상해시 대강주식유한공사,▲상해시 대영육금연합총공사, ▲길림성 덕대유한공사 등 4개 작업장이다.

중부북부 집중호우 전남지역 태풍 큰 피해 육용오리 출하량에 영향

지난 중부북부 집중호우와 태풍 엘가에 의한 오리사육농가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돼 새끼오리 생산 및 육용오리 출하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회가 자체집계한 중부지역의 집중호우 및 전남지역의 태풍에 의한 피해는 중부북부지역의 경우 경기도 연천군의 최영기 회원이 축사 전체가 유실되어 새끼오리 1만3천수,큰오리 1만수등이 폐사하는가 하면 연천,파주,포천군 일대 10여개 농가에서 3만2천5백수의 오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또 태풍 엘가에 의해서는 전남지역의 사육농가의 피해가 커 부화장 5개소를 포함하여 총 38개 농가에서 축사

가 완전 파손되거나 반파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로인한 피해규모는 축사만 2만3백 78평 피해액은 64억1천6백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서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총 피해액은 65억3천6백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집계되지않은 농가가 더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남 나주 영암의 부화장들이 이번 태풍으로 축사의 50%정도가 완전 파괴되어 새끼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며 축사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이지역 육용오리 사육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같은 가운데 피해를본 대부분의 사육농가들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무허가 축사로 사실상 재해대책 지원자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는 본회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건의회신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계획지역 및 준도시계획지역과 건축법 제8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의 200제곱미터 즉 60평미만의 축사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에 등재여부와 상관없이 복구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치하였으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축사의 경우는 복구지원이 지난하다는 회신에 따라 사실상 복구지원을 못받을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육용오리 체화현상 완전해소

여름철 오리고기 소비가 크게 호전되면서 지난 6월에 나타났던 육용오리 체화현상이 완전해소되어 육용오리 사육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6월 오리체화현상에 따라 일부 계열화업체들이 수매하여 냉동보관중이던 비축물량역시 대부분이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월과 8월 성수기 철을 맞아 오리고기 소비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오리 간염, 폐혈증 발생 농가피해 심각

농장에 한 번 발병하면 큰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인 오리간염과 세균성질병인 오리파스튜렐라 감염증에 의해 피해를 보는 농가가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 양지에서 1만수내외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한 농가는 지난 7월부터 입추된 새끼오리가 3-10일령 사이 30%가 폐사하는 질병발생으로 농장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경기도 안성에서 5천수내외의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역시 같은증상으로

입추된 오리의 30%, 많을 때는 70%까지 폐사하고 있어 농장운영을 포기할 위기에 처해있다.

그런가 하면 충남 서산에서 6만수 내외의 오리를 사육하는 한농가는 18일령부터 오리 폐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출하때 까지 폐사가 발생하여 육용오리 출하율이 80%를 밑돌아 농장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이들 질병발생 농장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농장을 비워보기도하고 좋다는 항생제, 소독등 할 수 있는 방제대책을 총동원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질병피해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들 피해농가들이 수의관련기관에 가건물을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이 질병은 오리바이러스 간염과 오리 파스튜렐라 감염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오리바이러스 간염의 경우 뚜렷한 치료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 97년도 개발한 백신 역시 백신제조회사의 약효검증이 끝나지 않아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오리파스튜렐라 감염증의 경우는 백신이 상용화되어 있으나 사육농가들의 필요성 인식부재와 제조상의 어려움으로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질병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육농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질병방제 대책노력과 함께 백신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끼오리 가격 33% 인상

중부지역 새끼오리 가격이 종전가격보다 33% 인상된 8백원선에 거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8월 28일 중부지역 일부 부화장들이 새끼오리 가격을 종전 6백원에서 2백원 인상하여 오는 30일부터 8백원에 분양한다고 사육업계에 통보하면서 나오고 있다.

또 호남지역 부화장들 역시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어 새끼오리 가격을 8백원선으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키고 전남도지회 운영이사회 없이 각회원에 새끼가격 인상을 통보했다.

이에따라 일부 부화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화장들이 새끼오리 가격을 8백원으로 인상하여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새끼오리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호남지역 사육농가들은 새끼가격 인상에 따른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부지역 사육농가들 역시 현재 육용오리 가격이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앞으로 9월과 10월의 비수기에 따른 출하일령 지연등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새끼가격 인상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